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¹

나은영² · 민경환³

²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 ³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국 문화의 이중성, 즉 명시적/공식적 규범과 암묵적/비공식적 행동원리 간 불일치의 저변에는 근대적 규범과 유교적 관행 간의 불일치, 비공식적 대인관계망(즉, 연고주의와 연줄망)의 발달, 의사소통 구조의 이중성, 및 가족이기주의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집단 신뢰는 높지만 사회 전체의 신뢰는 낮아지는 결과가 생긴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큰 세대차도 이러한 이중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을 문헌연구를 통해 개념적·이론적으로 정리해 보고, 기존 조사자료들에서 경험적 증거를 찾아 제시하였다. 21세기 한국 문화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I. 문제의 제기

현재의 IMF 위기를 경제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한국 문화 안에서 그 뿌리를 찾으려는 시도가

근래 눈에 띈다(예: 이진우, 1998). 재벌기업의 경영구조나 정치권력의 의사소통이 모두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건강한 자본주의의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투명성의 결여”가 바로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화 이중성” 또는 “이중적 문화”의 결과이다. 정경유착이니 폐쇄적 관료체제니 하는 것들이 모두 우리 문화의 이중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현상들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병”이라 일컫는 문화의 이중구조 저변에 어떤 심리적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지 관련되는 개념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조사연구들 가운데 우리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를 잘 드러내는 조사결과들을 재해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1. 이 논문과 관련된 보다 간단한 형태의 보고(중간보고)는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사회과학연구’ 제24호(1998. 2.)에 소개한 바 있으며, 여기 실는 내용은 3년 연구과제 중 1차년도 문헌조사의 완성된 결과보고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교육부 지원(1996. 12. - 1999. 11.) 대학부설연구소(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세부과제 1차년도 최종보고서의 일부로서, 전체 공동연구원 7인(책임연구자: 서울대 인류학과 이문웅 교수) 가운데 심리학 하위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연구원 2인이 작성한 것이다. 세부과제 전체의 제목은 “탈현대시대 한국인의 의식과 관행: 시민사회,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의 비공식성을 중심으로”이다. 본 연구의 일부 자료들을 제공해 주신 서울대 심리학과 차재호 교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교수, 그리고 전북대 사회학과 정철희 교수께 감사드린다.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1. 명시적 규범과 암묵적 행동원리 간의 불일치

한국 사회에서는 (1)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명시적 규범(법, 규칙, 제도 등)의 구조와 (2)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진행되는 암묵적 규범이나 행동원리 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발견된다. 이러한 이중성의 근원은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규범적 측면만 근대화되고 내면에는 아직도 전통적인 유교적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예: 함재봉, 1997; 김병국, 1997).

이러한 시각에 대한 하나의 경험적 증거는 차재호(1994)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외국인 전문직을 토대로 지난 100년간 한국인의 가치, 신념·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크게 세 시기-- (1) 1910년 이전, (2) 1910-1945년, 그리고 (3) 1945년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신념·태도(즉, 규범과 당위)는 많이 변했으나 행동(즉, 관행과 현실)이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가치의 50%, 신념·태도의 89%, 그리고 행동의 29%가 변화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결과를 사회적 환경의 피상적인 면만이 변화하고 보다 깊은 사회구조적 측면이 변하지 않은 데 따른 효과라고 해석한다(차재호, 1994, p. 55). 즉, 신념·태도보다 행동이 엄격한 현실(hard reality)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p. 55).

또 한편으로는,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우리 문화 안에 이미 이와 유사한 이중성이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가까운 행동 사례들을 예로 들어 보면, 옛날에 양반이 체면 때문에 실제로는 냉수만 먹고도 겉보기에 고기를 먹은 것처럼 이를 쭈신다든지, 요즈음 겉으로는 '명절 떡값'이나 '윗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뇌물이 오가는 경우, 윗사람이 '체면' 때문에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랫

사람이 '눈치'로 그 의중을 헤아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중성은 일보다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 흔하다(Hofstede, 1980, 1991). 특히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 전통문화에서는 겉으로 명시되어 있는 법규보다 암묵적으로 통하는 도덕윤리가 더 크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나은영, 1997). 집단주의 사회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맥락(high context) 의사소통이 이러한 이중구조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차재호·나은영 역, 1995; Hall, 1976). 저맥락(low context) 문화에서는 겉으로 표현된 내용이 표현된 것 이외의 다른 것을 거의 암시하지 않는 직설적 의사소통을 선호하는데 비해, 고맥락 문화에서는 겉으로 표현된 내용 이면에 "의중"이나 "속뜻"이 상당히 들어있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런 의중이나 속뜻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성 면에서만 따진다면 저맥락 문화가 더 투명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고맥락 문화는 본질적으로 불투명한 의사소통의 이중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고맥락 의사소통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못생긴 사람을 보고 "너 정말 못생겼다"고 끝이끝대로 말한다면 상대방에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으므로 속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가나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그만큼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의사소통 습관에 젖어 있다 보면, 상대방이 진실로 이야기한 것에도 무슨 공공이 속이 있지 않을까 추측하게 되어 불필요한 불신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불투명한 이중적 구조에서는 사회적 신뢰가 쌓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2. 문화이중성과 세대간의 가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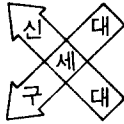
특히 기성세대일수록 이중적인 경향이 더 강할 가능성이 많다(MBC 다큐 스페셜, 1998). 본고에서 이중성의 주제를 다루면서 세대차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구세대의 이중성 차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MBC 다큐 스페셜 제작팀이 과학기술원 연구팀과 함께 간단히 실험한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본다면, 압구정 거리와 육사생도들의 행진 모습, 그리고 전자우편과 편지 등에 대한 선호도를 주관적 평가와 생리적 측정치(뇌파 등)로 측정한 결과, 신세대는 주관적 평가와 생리적 반응이 일치했던 데 비해 기성세대는 상충되는 것이 있었다. 예컨대, 신세대나 기성세대나 모두 생리적 반응은 육사생도의 행진 모습보다 압구정 거리에 더 유쾌하게 반응했는데, 주관적으로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지 응답하게 했을 때는 신세대는 압구정 거리를, 기성세대는 육사생도의 행진 모습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기성세대의 경우 지금까지 자라온 방식에 의해 바람직한 것이 머리 속에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뇌파로 선호하는 것도 기존의 제도나 관습을 벗어나면 주관적 평가에서 좋지 않게 판단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물론 뇌파의 해석

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표본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제약도 있으나,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문화의 이중성이 세대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 예라고 할 수 있다.

기성세대의 경우 신세대보다 유교문화의 지배에서 더 자유롭기가 힘들기 때문에(최준식, 1997), 혹은 기존의 가치관이 굳어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성세대에 상대적으로 이중성이 더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최준식(1997)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도시에 살수록 개인주의화되는 추세를 지적하고 있는데, 개인주의화된다는 것은 집단의 규범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집단의 규범과 사적 행동기준을 이중적으로 둘 필요가 없어진다. 이 경우에도 역시 관계중심적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점에서는 이중성이 장점이 될 수도 있으나,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중성의 부정적인 측면이 문제가 된다.

근대화 과정에서 쏟아져 들어온 외래문화와 우리의 전통문화에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양 문화의 장점들보다 단점들을 더 많

표 1.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바람직한 가치요소와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요소

바람직한 가치요소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요소	
전통문화	부모에 대한 효성		의존성, 사대주의, 권위주의 비합리적 사고방식 허례허식 신분 의식
	상부상조의 정신 예의범절 웃어른에 대한 존경		
외래문화	독립정신과 개척정신		윤리적 타락 물질주의 이기주의
	합리적인 생활태도		
	개인의 존중		
	준법성, 공사의 구분		

출처: 나은영, 1995, p. 47의 표 2 (Na, 1997, p. 86, Table 2). 원래 임희섭(1994)의 표 17 - 20(pp. 131-133)에서 응답자의 10% 이상이 지적인 항목들만 간추려 재구성한 다음, 중앙에 교차하는 화살표를 필자가 첨가하여 우리가 세대별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나타낸 것임.

이 가지고 있다(나은영, 1995; Na, 1997). 신세대는 외래문화의 단점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기성세대는 전통문화의 단점들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자명하다: 전통문화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외래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표 1 참조).

본 논문에서는 한국 문화가 지니고 있는 이중성을 근대적 규범과 유교적 관행 간의 불일치, 비공식적 대인관계망(즉, 연고주의와 연줄망)의 발달, 의사소통 구조의 이중성, 및 가족이기주의와 신뢰의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조명해 본 다음, 기존의 조사연구 자료들을 재구성하여 근거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세대차에 관한 연구들도 함께 살펴 봄으로써, 문화 이중성과 가치 세대차의 근원이 무엇인지 역사적·이론적으로 정리해 보고, 특히 어떤 측면에서 이중성이 극복되었고 어떤 측면에서 이중성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또한 세대차는 특히 어떤 부분에서 더 큰지 등에 관한 시사점들을 얻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자료들의 분석 결과를 “문화 이중성”에 관한 부분과 “세대차”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을 다시 이론적 자료와 조사자료로 나누어, 각 부분마다 먼저 이론적 문헌들을 다룬 다음 조사자료 문헌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II. 한국 문화의 이중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조사자료 해석

1. 근대적 규범과 유교적 관행 간의 불일치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을 유교적 전통과 관련지어 논의한 학자들은 많다. 예를 들면, 함재봉(1997)은 최근 창간된 「전통과 현대(전병재 편, 1997)」의 “유교와 세계화: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라는 글에서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가치관과 이상의 혼란은 지난 30년간 성숙되어 온 근대의 사상과 이상이 전통사상, 가치,

사고방식, 그리고 생활양식과 충돌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보고(p. 29), “근대화 1세기의 결과 형성된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형식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근대사상이, 실질적이고 관습적인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형태”라고 진단하였다(p. 33). 같은 책에서 김병국(1997)도 “반유교적 유교정치: 한국 정치담론의 모순”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 고유의 전통이 공식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은밀하게 살아남을 기회를 포착”했다고 표현하고 있다(p. 51). 그는 이어 “현대 한국정치의 향방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사(doxa, 즉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삶에 대한 무언의 가정과 명제를 담고 있는 말들)는 바로 ...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아를 규정하도록, 또 현실과 원칙을 동시에 중시하고 이들을 서로 조화시켜 보다 높은 지적 상태인 ‘중’의 차원으로 올라가도록 부단히 유도하는 유교문화”라고 지적한다(p. 57).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모두 한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걸으로는 많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관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교의 영향을 막강하게 받고 있어 이중성의 근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형철(1997)도 역시 같은 책 “현대의 도덕관과 유교의 도덕관”이라는 글에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적 영역에 적용하는 개인 윤리규범과 공적 영역에 적용하는 사회 윤리규범에 구분을 둔다”고 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강조되는 덕목은 평등한 사람들 간의 차별없이 평등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반면 사적 영역에서는 어느정도 불평등하면서도 따뜻한 사랑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보았다(p. 144). 즉, 공적 영역에서는 근대적인 평등 규범이 작용하지만, 사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유교에 기반을 둔 “차등적 형태의 사랑”을 당연시함을 의미한다(최준식, 1997 참조).

유교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 학자도 있다. 예를 들면, 강정인(1997)은 “유교와 이슬람교가 민주주의에 적대적, 특히 유교가 더 적대적”이라는 Huntington(1991)의 주장을 반박한다. 유교가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이유로 헌팅턴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자유보다는 권위를, 권리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며, “질서의 유지와 위계제에 대한 존중이 중심적 가치”였기 때문으로 보고, “기독교의 보급, 경제발전으로 인한 도시화, 교육수준 상승, 중산층의 형성 등 외적 요인에 의해 유교의 영향력이 상쇄 또는 약화되어야 민주주의가 실현가능하다”고 보았는데(Huntington, 1991), 강정인(1997)은 이에 대해 “전근대적인 유교를 19세기 중엽 이후에 완성된 근대 자유주의를 잣대로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며, “유교가 기독교나 이슬람보다 근대의 대표적인 반민주주의적 성향 -- 전체주의, 종교적 광신주의나 테러리즘 --을 훨씬 덜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대체로 유교가 근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는 시각으로 크게 나뉘고 있다. 이진우(1998)가 지적했듯이,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고 또 가족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유가적 공동체주의가 한편으로는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문화적 자본이 되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기주의, 족벌주의, 정경유착과 같은 기형적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작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유교문화의 잔재는 한국인의 행동규범에 아직까지도 큰 제약을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며, 이와 같은 유교적 관행 중 근대적 규범과 불일치를 지니는 측면들이 주로 우리 사회의 이중성 저변에 자리하고 있다.

2. 비공식적 대인관계망의 발달: 연고주의와 연줄망

어느 사회에나 공식적 대인관계망과 함께 비공식적 대인관계망이 발달하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요한 일들이 주로 비공식적 대인관계망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혈연·지연·학연 중 하나 이상이 얹혀 있는 “내집단”에 속하는 “자기 사람”을 옆에 두어야 안심이 되고, 외집단 사람들은 공식적 조직에 함께 있어도 일단 불신하기 때문에 진실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식적 조직은 허울 뿐이고 사적 조직이 더 큰 힘을 발휘하며, 공(公)과 사(私)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지고 혼탁해지는 양상을 보인다(예: 문석남 등, 1990; 이종한 1994; 임태섭 편저, 1995).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정의 자체에 그 개인에게 중요한 타인들이 개입된다. 예컨대, “나는 누구누구의 몇째 아들이다” 혹은 “나는 무슨 과에 근무하는 누구이다” 등과 같이 내집단에 관한 언급이 없이는 “나”라는 존재 자체의 정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내집단과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개인”으로서의 “나”에 대한 정의의 경계가 모호하다. 그 대신 “내가족”과 “남의 가족,” “우리 학교 출신”과 “다른 학교 출신” 등과 같은 집단간 경계가 아주 뚜렷하다. 즉, “나”와 “우리”를 뚜렷이 구분하지 않으면서 “나”를 “우리”와 동일시하고, 동시에 “우리”와 “그들”을 지나치게 분명하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그림 1의 (가)와 같다. 개인의 정의에 있어서 집단주의는 (가)의 내부 그림처럼 점선으로 겹치게 표현하고 개인주의는 (나)의 내부 그림처럼 실선으로 겹치지 않게 표현한 부분은 Markus와 Kitayama(1991)의 도식을 조금 변형한 것이며(p. 226), 전자의 경우 집단간 경계 부분을 아주 뚜렷하게 그리고 후자의 경우 집단간 경계를 점선으로 겹치게 그린

(가) 집단주의 속의 개인과 집단

(나) 개인주의 속의 개인과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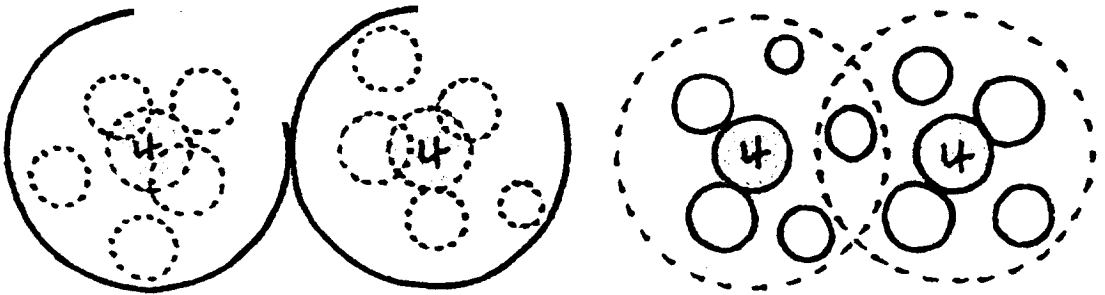


그림 1.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정의

것은 필자가 집단간 관계의 양상까지 추가하여 모형화해 본 것이다. 그림 1의 (나)처럼 집단간의 심리적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한 개인이 어느 집단에 속하든 큰 차별 없이 하나의 개인으로 존중됨을 뜻한다. 반면, (가)의 경우는 개인의 정체성이 집단과 혼합되어 있고, 집단들이 서로 따로 따로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의 경우로서, 이런 구조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보게 될 커뮤니케이션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재혁(1996)의 용어를 빌리면, 그림 1의 (가)와 같은 경우 집단내 연결망의 완결도가 높아 집단내 대인관계의 높은 신뢰감 형성이 가능하고, 따라서 집단내 관계에서는 거래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내집단 속에서 폐쇄적인 의사소통만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가)와 같은 구조는 더욱 강화된다. 반대로, 그림 1의 (나)와 같은 경우 집단내 연결망의 완결도는 높지 않지만¹⁾ 사회 전체 연결망의 완결도가 높아 “사회적 신뢰”의 형성이 가능하다. 다음에 논의하게 될 의사소통의 이중구조나 신뢰의 문제도 모두 이런 맥락에서 보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된다.

3. 의사소통 구조의 이중성

한국사회의 특성이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현재의 상태 그대로를 분석해 보는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 박승관(1994)은 「드러난 얼굴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저서에서 한국사회의 이원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식민화되어 있다(그림 2 참조). 즉,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처럼 겉으로 드러난 “얼굴”은 전자에, “우리가 남이가?” 내지는 “우리끼리 애긴데 ...”처럼 내용과 실질을 장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사회의 의사소통 구조는 후자가 전자를 지배하는 식민주조라는 것이다(표 2 참조).

커뮤니케이션 이원화와 식민화 과정의 근원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전통적 연고주의”를 드는데(박승관, 1994), 이런 점에서 “사적 연결망”을 중요시하는 한국적인 전통이 커뮤니케이션의 이중성과 연결된다. 한국사회에서 혈연·지연·학연이 갖는 “도구적 효율성”도 많은 학자들이 이미 지적했다(예: 김선업, 1992; 문석남 등, 1990; 박승관, 1994). 그 이후 박승관(1996)은 또 이러한 내집단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경계내 커뮤니케이션,” 집단과 집단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경계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때,

1) 원래 완결도(closure)는 하나의 단위로서의 연결망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정의되지만(이재혁, 1996), 그림 1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많을수록 하나의 단위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완결도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건전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경계내 커뮤니케이션에 비하여 경계간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공식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연코 경계내 커뮤니케이션의 양과 질이 경계간 커뮤니케이션의 양과 질에 비해 월등하므로,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

다고 비판한다. 즉, 그의 용어를 빌리면 우리나라는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에 해당한다. 이것을 “끼리끼리” 커뮤니케이션, 또는 “편가르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박승관, 1996, p. 36).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화이중성은 이처럼 의사소통 체계의 이중성으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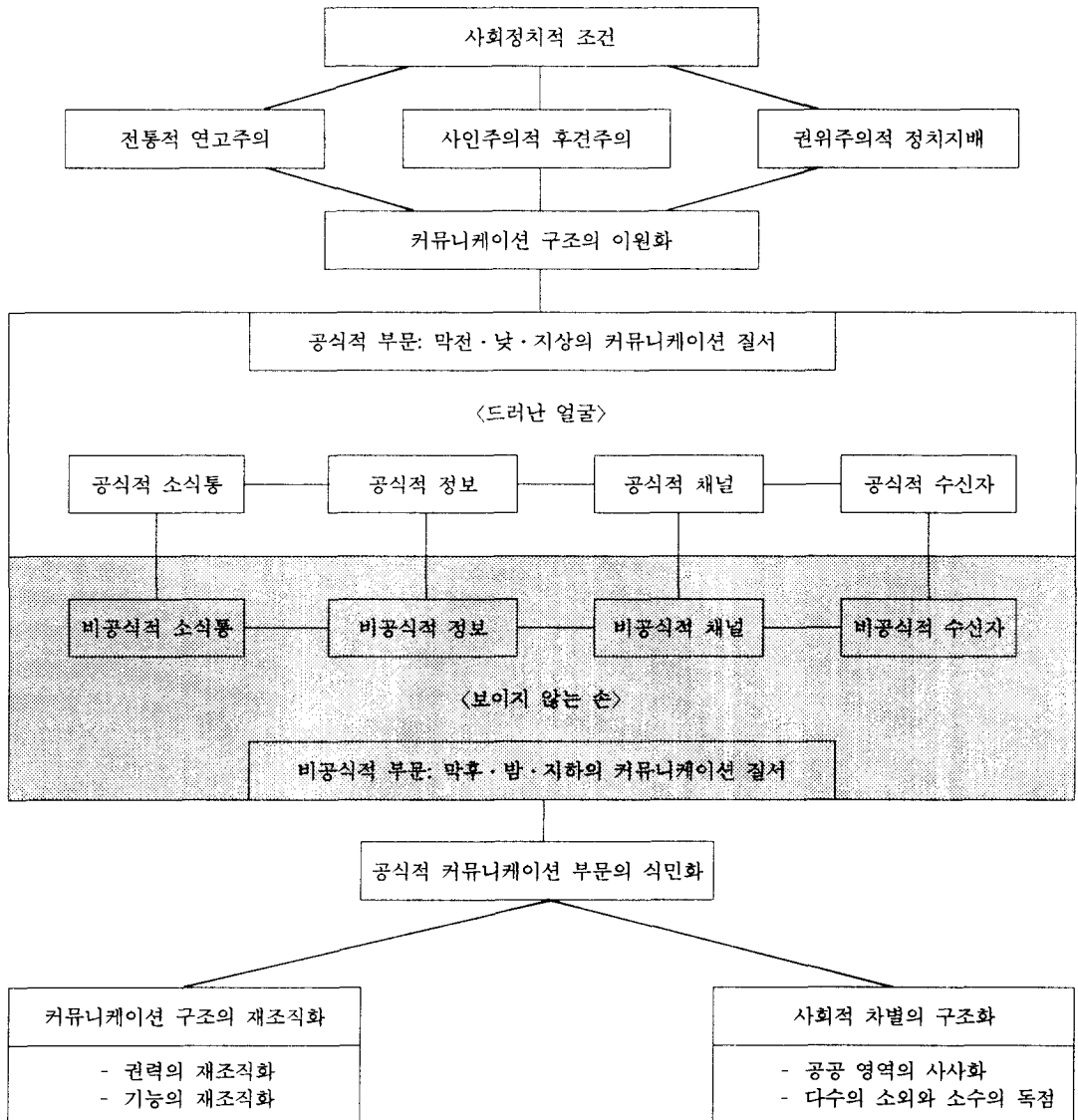


그림 2.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부문의 식민화 과정 (박승관, 1994, p. 42).

표 2. 한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이원화와 식민화의 양상 (박승관, 1994, p. 71).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부문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부문
소식통	- 특성 공식성 · 실명성 · 대표성 투명성 · 책임성 - 일반적 출현방식 대변인 - 실질 얼굴마담 · 대독총리 드러난 얼굴	- 특성 비공식성 · 익명성 무책임성 - 일반적 출현방식 측근 · 고위당국자 - 실질 실세 · 가신(家臣) 보이지 않는 손
정 보	- 특성 책임성 · 공식성 · 가공성 표면성 · 무가치성 - 표현 형식 겉말 분장 · 포장 · 가공 세탁 · 재처리 - 실질 일반저급정보	- 특성 상세성 · 구체성 · 심층성 은밀성 · 기밀성 · 가치성 - 표현 형식 속말 · 껍속말 원색적 · 노골적 처리전 · 원자재적 형식 - 실질 고급핵심정보
채 널	- 특성 공개성 · 개방성 · 무제한성 매스 커뮤니케이션 양식 - 환경적 조건 막전, 낮, 지상 - 현실적 전형 기자회견장 공개 민원봉사 행정실	- 특성 은폐성 · 비밀성 · 폐쇄성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양식 - 환경적 조건 막후, 밤, 지하 - 현실적 전형 안가 · 밀실 · 요정 · 룸살롱 지하서재
수신자	- 특성 무차별성 · 불특정성 - 일반적 표현 방식 '친애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실질 소외된 다수 - 조직성 비조직화 · 비세력화	- 특성 차별성 · 제한성 · 선택성 - 일반적 표현 방식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 얘긴데...' - 실질 소수 특권층 - 조직성 강한 연대 · 세력화
효 과	비공식적 부문에 의한 공식적 부문의 식민화 -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권력과 기능의 유기적 재조직화 - 공식적 부문: 형식과 외관의 관리 · 겉치레 장치 · 失權化 드러난 얼굴 - 비공식적 부문: 내용과 실질의 장악 · 성역화 · 實權化 보이지 않는 손 - 사회적 차별의 구조화 - 융합과 배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관철 - 공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사사화 - 다수의 소외 · 소수의 독점	

경계간 커뮤니케이션의 벽이 워낙 두꺼워, 다른 경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걸로 드러나지 않는 일종의 패스워드(password)가 있어야 한다고 그는 또 주장한다(박승관, 1996). 걸로 드러나는 키워드(keyword)와는 달리, 걸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신의 경계 바깥에 해당하는 인물과 의사소통 하기 위해서는 암묵적인 신호--예컨대, 향응이나 접대, 뇌물 등--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도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인 고맥락 의사소통과 무관하지 않다.

4. 가족이기주의와 사회적 신뢰의 부족

문화의 이중구조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를 형성 또는 유지하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중적이라는 것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며,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걸만 보고 믿을 수가 없다. 속이 혹시 걸과 다르지 않을까 “의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불신”의 씨앗이 된다.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근거한 가족중심주의에서 “차등적 형태의 사랑”이 합리화되어 왔음은 앞서 잠깐 언급한 바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최준식(1997)은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효(孝)이며 여기서 바로 한국적인 집단주의, 즉 가족주의가 탄생했다고 본다. 유교에 기반을 둔 한국적 가족주의에서는 남의 아버지보다 내 아버지가 우선시되며, “우리 가족은 영원한 내집단, 다른 가문과 집단은 모두 남인 외집단”이 된다(최준식, 1997, p. 38). 그에 따르면 “한국인의 가족주의는 한국적인 집단주의의 원형”이 되어 “가족을 기본단위로 해서 그 연고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며, “혈통의 순수성”을 고집한다(pp. 57-58). 그는 “내 새끼 유일주의”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동원하여 한국의 가족이기주의가 교육환경까지 망치고 있다고 강조한다(최준식, 1997, p. 71). 이 경우 자기 자식에 대한 신뢰는 지나치리만큼 철저하며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즉, 내집단 신뢰는 공고하며 집단간 신뢰는 약한데, 그나마 그 “내집단”의 단위가 “가족”이라는 최소단위에 있다는 데 한국 사회의 문제가 존재한다. 물론 가족에서 조금 더 나아가 혈연, 지연, 및 학연에 의해 신뢰가능한 내집단의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지만, 일단 “외집단”에 속한다고 여겨지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심지어 배척하는 분위기가 바로 한국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것은 우리 문화의 특성 중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높다는 것과도 어느 정도 관련된다(차재호·나은영 역, 1995; Hofstede, 1991). 나와 다른 것을 호기심 있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보다 무조건 “위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다.

Fukuyama(1995)는 한국을 가족중심적인 저신뢰 사회라고 규정한다. 한국 이외에도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저신뢰 사회로 꼽히는데, 저신뢰 사회에서는 혈족 이외의 사람들을 불신하여 공동체가 아닌 계약과 이기심에 기초한 관계가 팽배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법적 규제에 따른 업무추진이 필요하여 “거래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구승희 역, 1995).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은 고신뢰 사회에서는 높은 자발적 사회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 즉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며 정직하고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사회적 자본이 되어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본다(구승희 역, 1995, p. 49). 후쿠야마가 말한 대로 사회적 신뢰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는지, 아니면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대로 선진국들의 경제발전이 사회적 신뢰 구축의 선행조건이 되었는지, 그 인과관계의 방향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가족이기주의적 성향을 한 번쯤 반성해 보게 하는 대목이다.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는 거래비용이 절감된다(이재혁, 1996). 이재혁(1996)은 “행위자 개인의 신뢰도는 ... 그와 상대가 공동으로 속한 집단 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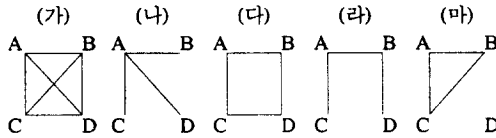


그림 3. 연결망의 종류(완결도가 높을수록 연결망 내의 신뢰가 높음).

[출처: 이재혁(1996), p. 525의 그림 1].

연결망의 크기와 완결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한다(pp. 525 - 526). 그림 3의 (가)는 완결도가 최대치인 연결망으로서 가장 높은 신뢰가 가능하며, (다)도 완결도가 비교적 높은 연결망으로서 연결망 내의 신뢰가 비교적 높다. 완결도가 가장 낮은 (나)에서는 A가 “관계자본”을 독점하고 있어서 관계 내의 전반적인 신뢰가 낮다. (가)와 (다)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가능하므로 거래비용이 절감되며, (나)와 같은 경우는 거래비용이 무척 크다.

그림 3의 연결망 완결도와 신뢰 간 관계 문제를 앞서 언급한 그림 1에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왜 집단간 의사소통은 적고 집단내 의사소통이 만연해 있는지 이해가 된다. 신뢰와의 관련 속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런 구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집단내 신뢰는 높는데 집단간 신뢰가 아주 낮아 사회 전체의 신뢰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림 1의 (가)와 같은 집단들이 포도알처럼 달려 있을 때, 그 중 어느 한 집단이 그림 3의 (나)에서 A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경우, 즉 특정 집단이 “관계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는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가 낮아지게 된다. 이런 경우 집단간 관계의 거래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되어 집단내 관계에만 편안하게 머물려는 경향이 생길 것이고, 따라서 패거리 문화나 파벌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한겨레신문, 1997. 5. 30.).

5. 한국인의 이중성에 관한 조사자료

작년 한겨레신문(1997. 5. 16.)의 특집 여론조사

“국민의식 이중성 해부: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두 얼굴의 한국인”의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된다. 이 신문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병폐적 현상들의 이면에 의식의 이중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p. 11)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중성을 가장 잘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1) 정치의식, (2) 사회의식 및 (3) 성차별의식의 세 분야에 걸쳐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물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시기는 1997년 5월 6-7일, 조사대상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이었다.

조사 결과 의식의 이중성이 큰 것으로 밝혀진 문항들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의식 (p. 11)

- ① • 현재와 같은 정당 · 후보자별 지역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 (74.0% 동의).
- 후보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면 같은 지역 출신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겠다 (60.9%).
- ② • 굶주리는 북녘의 현실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해야 한다 (65.6%).
- 북한의 변화 없이 식량지원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66.4%).

(2) 사회의식 (p. 13)

- ① • 대학을 반드시 다닐 필요는 없다 (70.9%).
- 내 자식만은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40.4%).
- ② • 출신대학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93.5%).
- 가능하면 내 자식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바란다 (71.7%).
- ③ • 과외는 금지돼야 한다 (73.4%).
- (내 자식의) 성적향상을 위한 과외는 불가피하다 (43.4%).

(3) 성차별 의식 (p. 13).

- ① • 아들 선호는 바람직하지 않다 (89.2%).
 - 자녀가 하나라면 아들이 좋다 (43.4%).
- ② • 남자도 가사일을 분담해야 한다 (88.9%).
 - 실제로 가사를 분담하고 있다 (53.5%).

위와 같은 이중성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그림 4와 같은 패턴을 보인다. 그림 4에서 굵은 실선 부분은 이중성을 지닌 응답자들의 비율이며, 가는 실선 부분은 일관성을 지닌 응답자들의 비율이다. 예컨대, 지역주의나 학벌사회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중성을 지닌 응답자의 비율이 일관성을 지닌 응답자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남녀 차별이나 국산품 애용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성을 지닌 응답자의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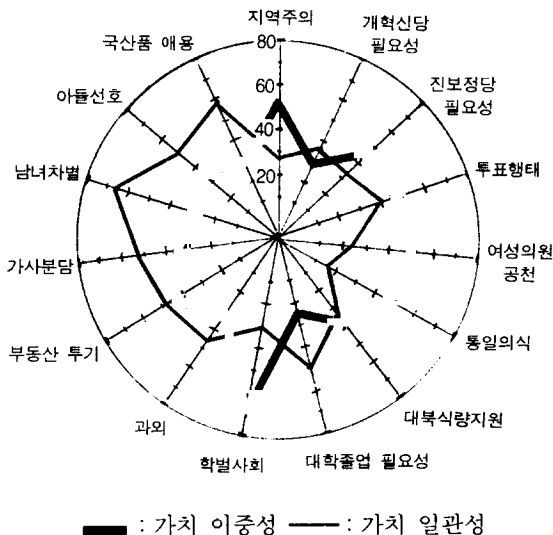


그림 4. 국민의식의 이중성 (한겨레신문, 1997. 5. 16. p. 11: 의식의 이중성과 일관성을 분야별로 나누어 시각화한 것. 굵은 실선은 의식과 태도가 이중적인 응답자의 비율을 의미. 가는 실선은 의식과 태도가 일치하는 응답자의 비율. 방사선에서 가치이중성의 값이 높을수록 의식의 이중성이 심각한 것임. 예를 들어, 지역주의에 대해 이중성을 가진 국민은 51.0%에 달한 반면, 28.2%만이 일관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조사 결과가 말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적(公的)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자신이나 가족의 문제와 결부시켜 실행하고 있는 사적(私的)인 기준 간의 이중성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조사는 우리가 막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우리 사회의 이중성을 경험적인 조사자료로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규태(1994)가 「한국인의 의식구조」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며 지적하고 있는 한국인의 열등의식, 서열의식, 상향의식, 집단주의, 은폐의식, 통찰의식, 금욕의식, 가족주의, 체면의식, 내향의식, 공공의식 등의 개념 속에도 상당부분 지금까지 언급한 문화와 의사소통의 이중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Ⅲ.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조사자료 해석

문화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이유 중의 하나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큰 세대차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치관의 세대차와 관련된 이론적 근거와 조사자료 문헌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려고 한다.

1. 한국은 세대차가 가장 큰 나라

Inglehart(1997)는 최근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련된 일련의 세계적인 조사연구들을 단행본들로 요약하여 출간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최근에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시사점들을 던져 준다. Inglehart(1997)에 따르면, 근대화(modernization)란 종교적·공동체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전통적 권위에서 성취동기와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이성적·합법적 권위의 강조로 옮겨가는 것인데 비해, 탈현대(postmodernization)

란 여기서 다시 권위를 강조하지 않고 성취나 경제성장보다 삶의 질이나 주관적 안녕감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그림 5 참조).

본고의 맥락에서 중요한 점은 근대화 과정의 성취지향성과 탈현대화 과정의 가치지향성이 세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태리, 벨기에, 및 네덜란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가치조사 결과를 세대별로 그려 보면 그림 6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Inglehart, 1997, p. 135).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성장을 향해 정신없이 뛰다가 IMF 시대를 맞아 주춤하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탈현대의 시작이 아닐까 여겨진다. 이 시점에서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를 추측해 본다면, 기성세대일수록 성취지향의 근대적 가치, 즉 물질주의가 많이 남아 있을 것이고 신세대일수록 가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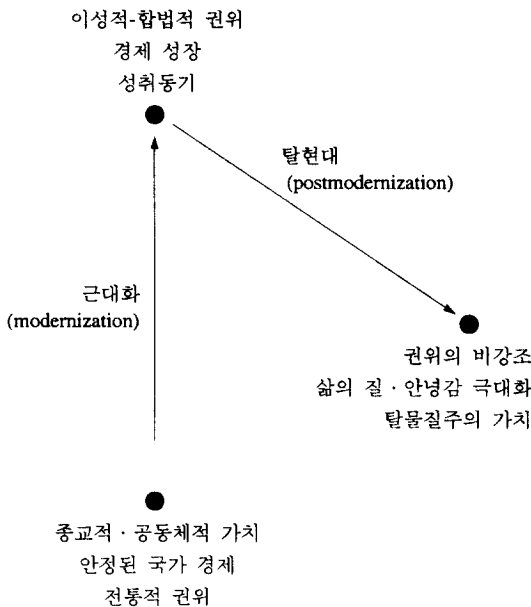


그림 5. 근대화에서 탈현대로의 변화: 인생에서 중점을 두는 가치의 변화
[출처: Inglehart(1997)의 그림 3.1(p. 75)을 번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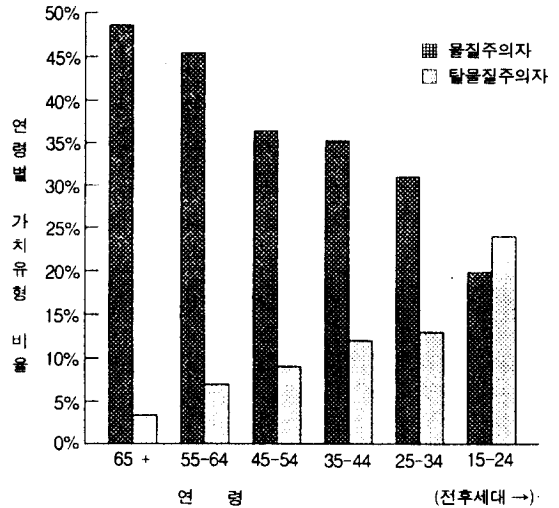


그림 6. 1970년대 유럽의 연령에 따른 물질주의의 가치와 탈물질주의의 가치 비교
[출처: Inglehart(1997)의 그림 5.1(p. 135)을 번역함].

현적인 탈현대적 가치, 즉 탈물질주의의 가치가 많이 발견될 것이다(정철희, 1997). 이에 대한 검증 자료는 다음 절에 제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먼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이 얼마나 큰 세대차를 보이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그래프를 제시하려고 한다. Inglehart(1997)에 따르면, 한국은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가장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나라로서, 변화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세대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져 가장 큰 세대차를 보이고 있는 나라이다(그림 7 참조).

세대차가 크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 안에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집단들이 포도알처럼 배타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내집단 안에서는 “끼리 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자기들과 달라 보이는 외집단은 처음부터 불신하고 배척하는 그림 1의 (가)와 같은 구조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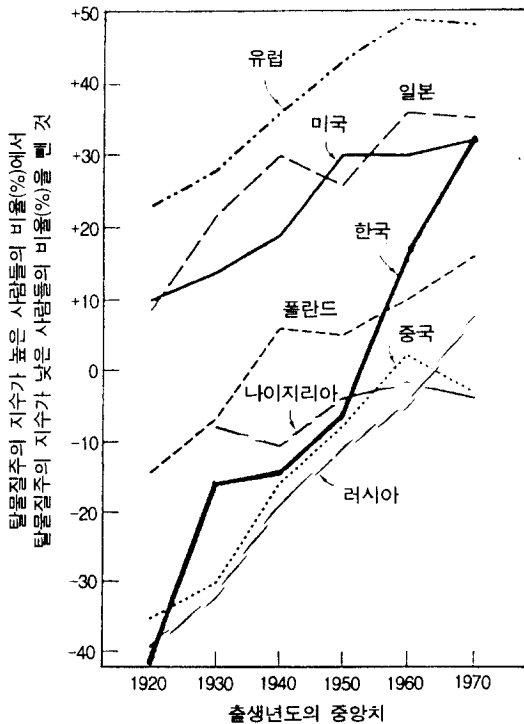


그림 7. 출생년도와 가치관의 관계 [출처: 1990-93 세계 가치 조사. Inglehart(1997)의 그림 5.5(p. 145)를 번역함. 12문항으로 된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조사에서 5개의 탈물질주의 목표들 중 적어도 세 개에 높은 비중을 둔 (즉, 네 개씩의 목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안에 3/5이상의 탈물질주의 항목을 포함시킨) 사람들을 탈물질주의의 지수가 높은 사람으로 분류함. 5개의 탈물질주의 목표들 중 어느 것에도 높은 비중을 두지 않은 사람들을 탈물질주의의 지수가 낮은 사람으로 분류함].

2. 한국의 세대차 조사 자료

세대차와 관련된 최근의 우리나라 자료를 살펴 보면, 정철희(1997)는 근래 “문화변동과 사회민주화: 탈물질주의 가치와 공중-주도 정치”라는 논문에서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탈물질주의의 가치가 신세대로 갈수록 더 많음을 증명하였다. 그가 보고한 조사결과는 서울대 “문화와 사회 연구회” 주최 “한국인의 삶과 가치변화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서, 세계 70여개국과 동시에 1995년 12월에 실시

한 전국표본($N = 1,253$ 명) 조사 결과였다. 그는 “다음 국가목표 중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하나씩 선택하십시오”라는 물음에 대해 표 3의 내용과 같은 선택지들을 섞어 놓고 가, 나, 다 문항군 각각에서 고르도록 했다. 여기서 물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항목을 5개 이상 고른 사람은 물질주의자로,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해당하는 항목을 5개 이상 고른 응답자는 탈물질주의자로, 그 이외의 응답자는 혼합형으로 분류했다.

정철희(1997)가 조사한 한국의 세대별 가치유형 비율을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의 12항목으로 측정하든 단순화된 4항목으로 측정하든 관계없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물질주의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젊은 층일수록 탈물질주의의 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박재홍, 1995).

좀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1970년대 말에 행해진 가치, 태도, 및 신념의 세대차 조사 결과를 살펴 본다면, 차재호(1985)가 1979년에 600명의 기혼 성인을 대상으로 가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0대와 50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온 문항들의 예를 들어 보면 표 5와 같다. 짐작할 수 있듯이, 신세대들은 기성세대들보다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더 많으며, 물질적인 풍요와 힘을 중요시하면서도 돈을 기성세대보다 덜 귀하게 여기는 이상주의적인 측면이 보인다.

표 3. 가치유형 측정 문항 (12개)

물질주의적 목표	탈물질주의적 목표
가 • 높은 경제성장 유지 • 방위력 증강	• 직장과 사회에서 발언권 증대 • 환경개선
나 • 사회의 질서 유지 • 물가, 인플레이션 억제	• 정부 정책결정에 발언권 증대 • 언론자유 보장
다 • 경제안정 • 각종 범죄소탕	•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 돈보다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

표 4. 연령별 가치유형 분포 (%)

연령	물질주의	혼합	탈물질주의	표본
4항목 척도				
30미만	12.1	60.2 ↑	27.7 ↑	405
30-39	12.0	61.8	26.2	309
40-49	21.8	54.6	23.7	262
50-59	28.0	58.8	13.2	182
60이상	↓ 42.3	48.7	9.0	78
12항목 척도				
30미만	7.3	83.0 ↑	9.6 ↑	395
30-39	15.7	77.4	6.9	318
40-49	23.0	72.8	4.2	265
50-59	32.6	65.2	2.2	178
60이상	↓ 54.4	45.6	0.0	79

표 5. 1970년대 조사에서 세대차가 크게 나온 문항들의 예 (%)

문항	20대	50대	
- 나라에 대한 충보다 부모에 대한 효가 중요	62.7	52.4	**
- 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 더 중요	49.0	33.7	***
- 집안의 명예보다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	65.3	49.7	***
- 힘보다 인간다움이 더 중요	68.7	77.7	*
- 고분고분한 직원보다 능력있는 직원 선호	71.4	62.4	*
- 깨끗한 인생보다 풍부한 인생이 더 중요	43.0	28.7	***
- 현대인에 필요한 것은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남의 잘못을 덮어두는 포용력	53.7	64.7	**
- 가문 이을 아이는 아들딸 누구나 좋다	68.3	48.0	***
- 돈은 없어서는 안될 것	63.4	73.3	**
- 돈은 귀한 것	58.7	69.7	**
- 나이많은 이에 대한 존대 불필요	28.3	13.4	**
- 기혼부인 정조지킬 필요없다	7.0	2.4	**
- 처녀의 정조 안지켜도 된다	19.3	4.7	***
- 과부의 정조 안지켜도 된다	56.7	42.7	***

서진환(1994)의 석사논문에서는 청주시를 중심으로 세대간 권위주의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았다. 그가 조사한 항목들은 주로 권위주의 지표 6가지, 즉 복종성, 공격성, 전통성, 권력성, 서열의식, 및 비타협성이었는데, 전반적인 권위주의 수준은 표 6에, 그리고 6가지 지표 하나하나의 수준은 표 7에 세대별로 제시하였다.

표 6. 권위주의 태도의 전반적 수준 (%)

연령	긍정	중립	부정
20대	55.3	15.7 ↑	29.0 ↑
30 - 40대	↓ 56.1	10.2	33.7
50대이상	71.7	8.8	19.5

예상할 수 있듯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권위주의적 태도의 경향성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밖

표 7. 세대별 복종성, 공격성, 전통성, 권력성, 서열의식, 및 비타협성 (%)
(권위주의를 나타내는 6가지 지표)

1. 복종성				2. 공격성			
	긍정	중립	부정		긍정	중립	부정
20대	42.0	13.7	44.3	20대	62.3	12.7	25.0
30 - 40대	40.7	9.7	49.7	30 - 40대	76.3	5.7	27.0
50대이상	68.7	12.0	19.3	50대이상	78.0	8.0	14.0
3. 전통성				4. 권력성			
	긍정	중립	부정		긍정	중립	부정
20대	65.7	17.0	17.3	20대	52.3	17.3	30.3
30 - 40대	71.3	13.3	15.3	30 - 40대	41.3	10.7	48.0
50대이상	87.3	6.3	6.3	50대이상	65.7	8.7	25.7
5. 서열의식				6. 비타협성			
	긍정	중립	부정		긍정	중립	부정
20대	60.7	17.7	21.7	20대	48.7	15.7	35.6
30 - 40대	67.3	11.7	21.0	30 - 40대	48.3	10.3	41.3
50대이상	79.7	7.3	13.0	50대이상	50.7	10.7	38.7

에, 같은 세대이더라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권위적이며,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조금 더 권위적이며, 유교나 불교를 믿는 집단이 기독교나 천주교 집단보다 더 권위적이라는 결과도 얻었다.

IV. 종합 논의

1. 1990년대 후반의 세대간 가치, 규범, 및 관행 차이 조사의 필요성

지금까지의 문헌연구 결과는 기존 조사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1990년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선 지금 새로운 가치조사를 하여 기존 결과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바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기존의 조사들과 달리 문화의 차원별로 가치문항들을 만들어 세대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 어떤 차원의 가치가 많이 변하고 어떤 차원의 가치가 덜 변했는지(시대 효과), 그리고

어떤 차원에서 세대차가 크고 어떤 차원에서 세대차가 적은지(나이+시대 효과)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하면 1970년대 가치조사 문항들과 동일한 문항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1970년대의 세대별 자료와 1990년대의 세대별 자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Hofstede(1991)의 문화차원들을 근거로 예상되는 문화의 변화 방향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문화의 차원별로 예상되는 변화의 방향 (근대에서 탈현대, 기성세대에서 신세대로)

문화의 차원들	예상되는 변화방향
①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개인주의 쪽으로
② 권력거리, 권위주의	권력거리 작은 쪽으로
③ 남성적 문화 대 여성적 문화	여성적인 쪽으로 ³⁾
④ 불확실성 회피 문화 대 수용 문화	불확실성 수용 쪽으로
⑤ 장기지향 문화 대 단기지향 문화	단기지향 쪽으로

아울러 권위주의 성격 및 행동(민경환, 1989)에 있어서의 세대간 차이와 시대에 따른 변화, 문화 이중성과 의사소통 양식, 규범, 및 신뢰 등과 관련된 문항들도 폭넓게 포함시킴으로써, 시대의 흐름과 연령의 변화가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늘날 한국문화의 이중성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가치규범이나 행동규범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 이중성과 세대차 간의 관계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를 하나의 틀 속에서 고려해 본다면, 이문웅 등(1997)의 보고서에 제시된 “전이적 공존”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비동시성의 동시적 공존”이라고 개념화된 전이적 공존의 틀은 전통·근대·탈현대라는 서로 다른 시간성이 그림 8과 같은 형태로 공존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문화 이중성과 세대차”라는 본 논문의 맥락에 맞추어 원래의 도식을 조금 변형하여 제시한다.

그림 8을 보면, 기성세대의 경우는 근대적 생각과 규범을 지니고 있으면서 전통적인 관행과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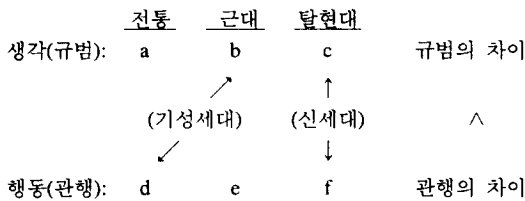


그림 8. 전이적 공존의 도식 (이문웅 등, 1997을 조금 변형함).

3) 물질적 성취보다는 삶의 질을 점점 더 중요시하게 되고, 남녀의 뚜렷한 역할구분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Hofstede(1991)가 예상했듯이 여성적인 쪽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세대, 혹은 탈현대대로 갈수록 자기주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남성성(masculinity) 혹은 자기주장성(assertiveness)의 증가가 예상되기도 한다. Hofstede(1980, 1991)가 말한 문화의 남성성-여성성 (혹은 자기주장성) 차원을 분리하여 조사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중성이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신세대의 경우는 탈현대적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중성이 적으나, 이들은 우리 사회의 공식적 규범을 만들어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 규범(즉, 그림 8의 b에 해당)과 행동 간의 괴리는 여전히 클 가능성이 있다.

사회 전체의 그림을 놓고 보면,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규범의 차이보다 관행의 차이가 더 현저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관행의 차이에서 갈등의 소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전반의 이중성을 지배하는 것은 실제적인 권력이 없는 신세대보다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의 공식적 규범과 비공식적 행동원리 간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1) 기성세대와 조금 다른 탈현대적, 탈물질주의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으면서 (2) 기성세대와 상당히 다른 행동패턴을 보이는 신세대가 가미됨으로써 우리 문화의 이중성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1970년대와 1990년대의 조사 자료를 면밀히 비교·분석해 보면 이러한 전이적 공존 체제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맺는 말

사회적 신뢰의 측면에서 볼 때 문화나 의사소통 양식의 이중적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외세에 의해 비연속적으로 급격하게 근대화되어 오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이중성을 이제 우리 국민 스스로의 개인 의식으로 극복해야 한다. 비공식적인 연줄망이나 “끼리끼리” 의사소통이 공적 합리성을 손상시키거나, 우리 사회의 관계자본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는 현상 등이 21세기에는 차츰 없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화는 변화하기 힘든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문화 자체가 180도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정착시키는, 즉

우리의 좋은 점(예: 상부상조)을 유지하며 서양의 좋은 점(예: 합리성)을 받아들이는 건강한 문화가 자라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문화의 “정체감 혼란기”를 벗어나 바람직한 우리의 “문화 정체감”을 형성해야 할 때이다.

참 고 문 헌

- 강정인 (1997). 유교 민주주의는 모순인가? 전통과 현대, 2(가을호), 362-381.
- 김병국 (1997). 반유교적 유교정치: 한국 정치담론의 모순. 전통과 현대, 1(여름호), 50-73.
- 김선업 (1992). 한국사회 연줄망의 구조적 특성. 한국사회학, 26, 1-33.
- 김형철 (1997). 현대의 도덕관과 유교의 도덕관. 전통과 현대, 1(여름호), 132-151.
- 구승희 역 (1995).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나은영 (1995). 의식개혁에 장애가 되는 문화적 요인들: 체면과 동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33-51.
- 나은영 (1997). 법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법의식에 관한 심리학적 분석. 법과 사회, 제14호, 176-204.
- 문석남 등 (1990). 지역사회의 연고주의: 혈연, 지연, 학연의 관계망과 실태. 서울: 일진사.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46-168.
- 박승관 (1994). 드러난 얼굴과 보이지 않는 손: 한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서울: 전예원.
- 박승관 (1996). 한국사회와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 한국언론학보, 36, 5-71.
- 박재홍 (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제29집(가을호), 651-683.
- 서진환 (1994). 세대간 권위주의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청주시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 MBC 다큐 스페셜 (1998). 신세대를 알면 21세기 가 보인다. 가정의 달 특집 프로그램(1998. 5. 21. 목요일. 밤 11:00-11:50 방송).
- 이규태 (1994). 한국인의 의식구조 1. 서울: 신원문화사.
- 이기홍 (1994). 행위, 행위주체, 그리고 구조. 한국사회학, 제28집(겨울호), 163-194.
- 이문웅 · 민경환 · 박명규 · 한경구 · 나은영 · 이재혁 (1997). 탈현대시대 한국인의 의식과 관행. 교육부 지원 대학부설연구소 세부과제 1차년도 연구보고서.
- 이재혁 (1996). 신뢰, 거래비용, 그리고 연결망. 한국사회학, 제30집(가을호), 519-543.
- 이종한 (1994). 연고주의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83-94.
- 이진우 (1998). 개방-다원적 공동체주의 세우자. 문화일보 (1998. 2. 23.), p. 17.
- 임태섭 편저 (1995). 정, 체면, 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 한나래.
- 임희섭 (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사.
- 임희섭 · 박길성 공편 (1993). 오늘의 한국사회. 서울: 사회비평사.
- 장만익 (1985). 세대간 가치격차에 관한 지역별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전공 석사학위 논문.
- 전병재 발행 겸 편집 (1997 여름). 전통과 현대 (창간호 특집: 유교와 21세기 한국). 서울: 전통과 현대사.
- 정철희 (1997). 문화변동과 사회민주화: 탈물질주의 가치와 공중 - 주도 정치. 한국사회학, 제31집(봄호), 61-83.

- 차재호 (1985). 70년대말에서의 가치, 태도 및 신념으로 본 한국인의 세대차. *사회심리학연구*, 2(2), 129-168.
- 차재호 (1994). 지난 백년간의 한국인의 가치, 신념 · 태도, 및 행동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40-58. (영문으로 되어 있음).
- 차재호 · 나은영 역 (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문화간 협력과 세계 속에서의 생존*. 서울: 학지사.
- 최봉영 (1997). *한국문화의 성격*. 서울: 사계절.
- 최준식 (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사계절.
- 한겨레신문 (1997. 5. 16.). 국민의식 이중성 해부: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두 얼굴의 한국인. 특집 여론조사. p. 11-14.
- 한겨레신문 (1997. 5. 30.). 만연된 패거리 문화. 우리사회 바로 세우자: 9. p. 6.
- 함재봉 (1997). 유교와 세계화: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 *전통과 현대*, 1(여름호), 26-49.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ukuyama, F. (1995). *Trust: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Hall, E. T. (1976). *Beyond culture*. Garden City, NY: Doubleday Anchor Books.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s.
- Huntington, S.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e, C. (1988). *Cross-cultural validity of the Fishbein behavioral intention model: Culture-bound or culture-free?*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ustin.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Na, E. -Y. (1997). Cultural impediments to mind reformation processes: Face-saving and conformity.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4 (1), 67-89.

Discrepancies Between Formal/Explicit and Informal/Implicit Norms in Korea and Generational Gaps: Theoretical Points and Evidence from Existing Survey Data

Eun-Yeong Na¹ and Kyung-Hwan Min²

¹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²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al/Explicit norms in Korea have been significantly changed since the beginning of modernization in Korea, but informal/implicit norms are still firmly based on traditional Confucian rules. Interpersonal networks and high-context communication styles centering around one's own ingroups have reinforced such a tendency. Overall social trust is low in Korea, because people are strongly identified with their ingroups and exclude outgroup members. Besides, Inglehart(1997) revealed that generational gaps in Korea are the largest among the surveyed 43 countries, based on his study on postmaterialism. After a short review of theoretical and traditional foundations of the Korean culture's dual standards, existing survey data were readdressed to illustrate empirical evidence for the discrepancies between formal/explicit and informal/implicit norms of Korea as well as Korean generational gaps. A systematic survey plan for the late 1990's was finally suggested to examine younger and older Koreans' values, norms, and practices, as a directional guide for the coming 21st century.